

현대중공업, 4천5백톤급 문무대왕함 진수

21세기 대양해군의 주력함으로 국내 최초의 스텔스함



KDX-II

2번함 「문무대왕(文武大王)」함 진수식이 지난 4월 11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영길 국방장관, 문정일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최길선 현대중공업(주) 사장을 비롯한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거행되었다.

지난해 5월 22일 KDX-II 1번함인 「충무공이순신」함 진수식에 이어 본격적인 대양해군 시대 개막을 예고한 이날 진수식은 함정명 선포, 대통령 치사 등의 순서로 거행되었으며,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진수 테이프를 절단하면서 「문무대왕」함이 바다를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 날 4,000톤급 「문무대왕」함의 진수로 인해 우리 해군은 90년대 말 건조된 3,000톤급 한국형 구축함(KDX-I)과 함께 전투함 분야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함, 대공, 대잠작전 등 입체적인 현대전 수행능력을 갖추므로써 해군의 원해 작전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지난 98년부터 현대중공업의 기술진에 의해 건조를 시작, 이번 진수식을 통해 선보인 KDX-II 2번함 「문무대왕」함은 앞으로 약 1년간 운용시험을 거친 뒤 2004년 하반기 중 해군에 인도되어 전력화될 예정이다.

이날 진수식을 가진 「문무대왕함」을 포함한 KDX-II

한국형 구축함은 미 해군을 비롯 선진국 해군에서 사용하는 SM-II 및 RAM 대공미사일을 탑재하여 자함 방어 위주였던 해군의 대공방어 개념을 구역 대공방어 개념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함정 선체에 스텔스 기법을 도입하여 적 레이더 탐지확률 감소를 통한 함정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5인치 주포 및 진보된 대잠수함 헬기를 탑재하여 지상작전 지원 능력과 대잠전 능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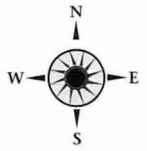
해군은 그동안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제해권 확보를 통한 국가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원해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대양해군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형 구축함 사업을 비롯한 차세대 잠수함사업 등 전력증강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해군은 1980년대 초부터 단계별로 KDX-I, KDX-II를 취역시켰으며, 이제는 이지스 체계를 갖춘 KDX-III 함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번에 진수한 KDX-II 2번함인 「문무대왕」함의 함명은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초로 국토를 통일하여 민족 통합

■ 「문무대왕」함 제원

구분	내용
크기	전장 : 150M, 전폭 : 17.4M, 깊이 : 7.3M
톤수	4,500톤 (경하톤수)
추진기관	가스터빈 2대, 디젤엔진 2대
속력	최대 29 노트
항속거리	4,000NM (18노트)
무장	•유도탄
	-대함 : 하푼(Harpoon)
	-대공 : SM-II, RAM
	•함포
	-5인치
	-30밀리 속사포
•헬기	SUPER LYNX 2대
•어뢰	8기



과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문무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죽어서도 바다로부터 쳐들어오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 동해바다에 묻히겠다”는 유언으로 해중릉에 묻힌 문무대왕의 숭고한 호국의지를 계승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이날 진수식이 거행된 울산 현대중공업은 문무대왕의 해중릉(경북 경주시 양북면 소재)과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어 1,320여년 후 다시 부활한 문무대왕함과 해중릉의 조우가 이채롭다.

획득실장 주재 방산정책 토론회 개최

방위산업 당면 현안 및 발전 방향 토의



국방 부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4월 2일 국방회관에서 최동진 획득실장 주재로 방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동진 획득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15일 신임 장관님께서 국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님께 업무 보고를 드릴 때,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는 국방연구개발정책과 함께 방위산업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국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최근 국방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 내용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부과제별로 분류, 개혁과제의 채택을 검토중에 있다”고 강조하고 “오늘 이 자리는 개별 업체의 애로사항 보다는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하는 자리인 만큼 이를 염두에 두시고 토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국방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종합한 후 금번 방산육성정책의 개혁과제에 적극 반영, 추진함으로써 최근 침체된 국내 방위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당면 현안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1부에 「전문계열화 정책 보완 발전 방향」과 「방산업체 적정 가동률 유지 대책」, 2부에 「방산업체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과 「국산화 개발 활성화 방안」을 소주제로 나누어 국방부 관계관과 18개 업체 대표 등 총 29명의 참석자들이 4시간 넘게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전환기 국가 위기관리정책 발전 방향』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주최 안보정책 세미나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 윤광웅)는 지난 3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전환기 국가위기관리 정책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 핵심현안 사항인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제기되는 현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였다.